

# WTO 농업협상 최근동향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5차 각료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답보상태에 있던 WTO 농업협상이 지난해 7월 기본골격 합의에 이어 올 12월 홍콩 각료회의를 앞두고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WTO 농업협상은 관세철폐와 보조금철폐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어, 만약 타결되면 우리 농업의 피해가 UR 농업협상으로 인한 피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1. 협상 동향 및 전망

지난해 기본골격 합의 후 5월 현재까지 총 8회의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개최되어 기술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오는 7월까지 세부원칙 1차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 달 간격으로 특별회의가 추가로 진행될 전망이다.

오는 7월에 마련될 세부초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12월 홍콩에서 개최될 제6차 각료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 세부원칙 1차 초안에 대한 협상 진전 여부가 12월 홍콩각료회의의 성



공 여부를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회원국들은 특별회의 이외에도 그룹별 각료 회의, APEC 통상장관회의(6월, 제주) APEC 정상회담(11월, 부산) 등을 통해 기술적 쟁점이 자국에게 유리하게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농업협상의 최종 타결은 홍콩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이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후속단계인 이행계획서 제출 및 검증협상, 미국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2006년 말 이후, 2007년 7월 이전에 완전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05년 WTO 농업협상 주요 일정>

구 분	장 소	일 자
2월 회의	스위스 제네바	7~11일
3월 회의	케냐(미니 각료회의) 스위스 제네바	2~4일 14~19일
4월 회의	스위스 제네바	13~15일, 18~19일
5월 회의	프랑스 파리(미니 각료회의) 스위스 제네바	3~4일 30~31일
6월 회의	스위스 제네바	1~3일
7월 회의	스위스 제네바 베이징(미니 각료회의)	11~15일 미정
12월 회의	홍콩(제6차 WTO 각료회의)	13~18일

## 2. 주요 쟁점(5월 현재)

### 1) 시장접근

- 구간별 관세감축방식과 관련해 EC와 G10은 UR 방식을 선호하나, 수출국들은 관세상한 설정, 대폭 감축을 주장
- 민감품목은 관세감축을 줄이는 대신 TRQ를 늘려야 하는데, 민감품목의 범위, 관세감축 수준에 대해 논란
- 증가상당치 산정방법은 지난 5월 회의에서 종량세를 증가세로 환산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방식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합의가 됨
- 농산물 긴급수입제한(SSG)과 관련해 G20은 SSG철폐를 주장, G10과 EC는 현행 유지를 주장  
개도국을 위한 특별품목(SP)과 특별긴급수입제한(SSM)과 관련해 이행기간과, 감축폭 우대에 대해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구체적 논의는 진척되지 않음

### 2) 국내보조

- 무역왜곡보조 총액을 감축하고 상대적으로 보조수준이 높은 국가(EC, 일본, 미국)는 추가로 감축할 것에 공감대 형성, 감축공식과 수준에 입장 차이 존재
- 개도국과 신규가입국에게는 최소허용보조(De-

minimis)의 감축을 면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EC, 미국 등은 반대

- G20은 블루박스 도입 요건 강화를 주장하나 미국, EC 등은 농정개혁에 있어 중요성은 인정하면서 요건 강화에 반대
- 허용보조(Green Box)와 관련해 브라질, 호주, 캐나다 등은 현행 농업협정 부속서 2의 요건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서 엄격히 규율하자는 입장, 미국, EC, G10은 현행 허용보조 기준 변경에 강한 반대 표명

### 3) 수출경쟁

- 수출보조 철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수출신용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신축성 확보에 노력, EC는 상환기간을 180일 이하로 제한하려 함
- EC, 스위스, 케언즈 그룹 등은 식량원조의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해 규율 강화를 주장하나, 미국, 일본, 한국은 지나친 규율이 인도적 지원 등 진정한 식량원조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규율 강화에 소극적 입장
- 미국, EC, G10 등은 수출국영무역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으므로 무역왜곡적 관행 관련 규율을 광범위하게 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규율 강화에 반대



#### 4) 기타

- 분야별 자유화에 대해 미국은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개도국 우대와 상충된다고 주장
- 지리적표시에 대해 TRIPs(무역관련지재권협상)에서 할 것인지 논란

### 3. 우리의 대응 방향

**첫째, 우리에게 유리한 세부원칙 반영** 우리의 농업기반유지와 식량자급, 안정적인 농가소득 등을 위해서는 WTO 농업협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원칙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반드시 개도국 지위 유지** 특히,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SP(특별품목), SSM(특별긴급수입제한)을 비롯해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 완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위 유지를 관철시켜야 한다.

**셋째, 공정한 협상진행 촉구** 또한 협상진행에서 미국과 EU 등의 강대국과 농산물수출국 등 일부 회원국들에 의한 일방적이거나 밀실협상 진행 등 불공정한 협상진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견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재수립 촉구** 현재 119조 농업투융자계획을 바탕으로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WTO와 FTA 등 농산물시장개방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너무나 미흡하다. 따라서 농민들이 시장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아울러, 농업의 다원적기능과 비교역적기능 등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